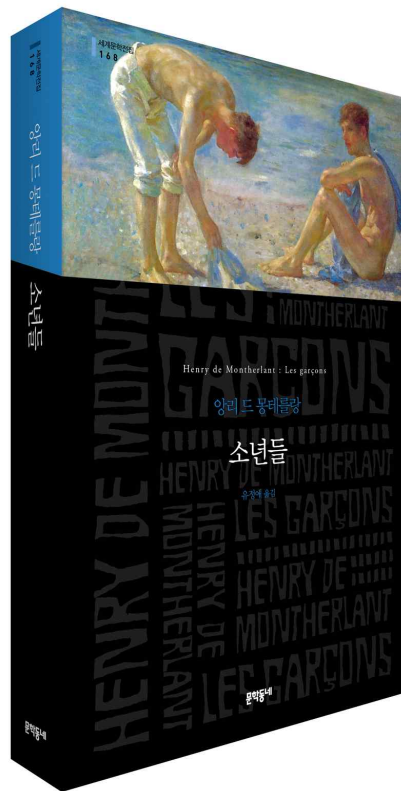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68

소년들

Henry de Montherlant : Les garçons



국내
초역

앙리 드 몽테를랑 지음 | 유정애 옮김

미학적 서사와 감성의 철학으로 풀어낸

흥분되고, 달콤하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여러 얼굴

부드러우면서도 종교적인 감정들의 꽃다발, 늦게 핀 장미처럼 개화한 로맨티시즘.

— 피가로 리테레르

코르네유와 라신에 비견되는 20세기 프랑스 문학의 거장 앙리 드 몽테를랑의 『소년들』이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68번으로 출간되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에 기반한 『소년들』은 가톨릭 학교인 파르크 콜레주를 배경으로 열여섯 살 소년 알방과 두 살 후배인 세르주의 특별한 우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린다. 오래전 기억을 섬세하게 더듬는 작가의 향수와 회한의 글쓰기 속에서 십대 시절의 풋풋하지만 진지했던 열정은 그후 경험하는 어떤 사랑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된다. 국내 최초로 번역 · 소개되는 『소년들』이 프랑스 현대문학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세기 프랑스 문단의 총아 몽테를랑이 남긴 '인생 작품'

앙리 드 몽테를랑은 소설과 희곡,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남긴 다재다능한 작가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종신회원이었으며, 아카데미 프랑세즈 문학상을 비롯한 유수 문학상들을 수상했고, 4부작 소설 '젊은 여성들' 시리즈로 대대적인 인기를 끌어 수백만 권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비평가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사랑받았던 20세기 프랑스 문단의 스타였다.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삼 년 전인 1969년에 세상에 내놓은 『소년들』은 50여 년에 걸쳐 완성된 소설로, 그의 삶과 작품 전체의 요약본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집필이 시작된 때는 1914년으로, 소설의 모티브가 된 몽테를랑의 퇴학 사건 이 년 후다. 생트크라 드 뇌이 콜레주의 철학반 학생이던 몽테를랑은 이 년 후배인 필리프 지켈과 특별한 우정을 나눴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바 있다. 인생의 한 시점, 십대 시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오랜 세월 곱씹으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절대적인 필요에서 나온 작품이기에 『소년들』을 그의 '인생 작품'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소년들』은 사랑의 다채로운 모습을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감성적이고도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놀라운 소설이다. 주인공 알방 드 브리쿨과 세르주 수플리에의 뜨거운 우정을 중심으로 세르주를 향한 알방의 티 없는 사랑과, 역시 세르주를 사랑하는 드 프라츠 신부의 배타적이고 맹목적인 사랑, 원장 신부가 말하는 신의 사랑과 성스러운 사랑, 알방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 등 사람들이 저마다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랑의 다양한 양상은 종교와 믿음의 화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보다 깊은 차원의 철학적 논의로 확장된다. 불문학자 페트리샤 오펔라허티가 논했듯, 『소년들』은 “신보다는 인간을 믿는 종교적 삶의 방식을 탐색”하는데, 그 방식이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순수하면서도 타락한 천사의 동지인 소년들의 학교 그곳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열정의 변주곡

파르크 콜레주의 철학반 우등생인 알방은 학교를 대표하는 신설 기구인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출된다. 아카데미에 소속된 열 명의 엘리트 학생들은 선배가 자신이 점찍은 후배를 돌보는 '보호 그룹'이라는 활동을 시작한다. 알방은 몇 년 전부터 좋아하던 이 년 후배인 세르주에게 몰두해 있던 터라 그를 자신이 보호할 후배로 정한다. 그러면서 둘 사이의 천진무구한 사랑, 특별한 우정이 시작된다. 알방은 이 놀라운 모험을 통해 인생의 신비하고 믿을 수 없는 측면을 차츰 발견하게 된다.

알방은 세르주를 이전에 다니던 에콜 모코르네에서 만났다. 세르주는 태도가 불량스럽고 거칠어서 친구들과 선생들의 미움을 한몸에 받는 아이다. 속절없이 사랑에 빠져버린 알방은 세르주가 빌려준 연필에 입을 맞추고, 세르주가 침을 발라 붙여놓은 이름표를 몰래 떼어오고, 세르주의 머리카락 한줌을 얻어 수납형 펜던트 안에 넣고 다닌다. 세르주가 파르크 콜레주로 전학을 가자 어머니를 설득해 같은 학교로 옮기기까지 한다. 이전에도 타인을 향한 매혹을 경험했던 알방이지만, 세르주에게 느끼는 감정에는 “무언가 매우 흥분되고, 심각하고, 약간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

알방과 세르주의 관계는 파르크 콜레주의 보호 그룹 아래서 좀더 내밀하고 열정적인 빛깔을 띠게 된다. 어느 목요일 저녁, 어스름이 짙어가는 시간에 알방은 인적이 드문 펠로타 경기장의 탈의실에서 세르주를 만난다. 열정 때문에 어둠 속에서 집게손가락에 피가 나고 외투의 안감이 찢어지기까지 했던 그 만남으로, 알방은 믿을 수 없이 놀라운 무언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꿈만 같고”, “존재하는 건 이 순간뿐”이었던 그 경험 후 놀라운 충만감과 행복감이 그를 감싼다. 알방은 생각한다. ‘겁이 날 정도로 행복하다. 나는 그애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미쳐버릴 거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되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다.’

보호 그룹의 분위기는 점차 육체적 쾌락에 몰두하는 방향으로 변해간다. 알방은 보호 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이 후배의 교육, “정신적 고양”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세르주와의 관계에서 새생활을 시작하여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콜레주의 분위기를 개혁하기로 결심한다. 순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알방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다른 친구들의 반감을 산다.

이 커플이 초콜릿 보관실에 단둘이 있을 때, 세르주를 유별나게 예뻐하고 알방에게 질투심과 적의를 품은 드 프라츠 신부가 갑작스레 나타난다. 그는 “파리를 잡기 위해” 둘이서만 있었느냐면서 몰아붙인다. 결국 처음에는 둘의 관계가 종교적 성숙과 자비를 배울 기회가 될 거라며 관대함을 보이던 원장 신부도, 그리고 알방과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던 친구들 또한 부정하다고 지목당한 이 우정에 등을 돌린다. 퇴학 처분을 받은 알방은 학교 밖에서 세르주와 만나지 않겠다고 드 프라츠 신부에게 약속하고, 순수한 열정만으로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인생의 한 시절이 막 끝났음을 깨닫는다.

파르크 콜레주를 떠난 후 알방은 마음을 달래려 애쓰지만 여전히 슬픔을 피할 수 없고, 이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피가 흐르는 이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고통이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세르주는 알방에게 “바람조차 건드릴 수 없는 서늘한 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강렬한 추억”으로 남았으니 말이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열정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 열정과 함께 남을 겁니다.” _본문에서

소설 속 인물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모습의 사랑은 종교와 믿음의 주제와 얽여 한층 더 다채로운 빛깔을 드러낸다. 몽테를랑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단언했지만 종교가 주요 동기로 작용하는 작품을 여러 편 남겼고, 『소년들』 또한 종교적인 배경을 취하여 가톨릭 학교를 무대로 삼고 있다. 서문에서 작가는 어느 신부가 무신론자 사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한다.

나는 무신론자 사제에 대한 소설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감히 훌륭한 사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자들의 가장 큰 선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부단히 교화하기 위해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사제. 여기에 바로 나 자신, 그리스도교를 느끼면서도 신앙이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한 주제가 있었다. (13~14쪽)

종교에 큰 관심이 없는 알방과 세르주, 매우 독실한 원장 신부, 무신론자이면서 신부가 된 드 프라츠 신부 등 종교와 신앙에 대한 태도가 가지각색인 인물들이 사랑의 서사에 또다른 층위를 더한다.

파르크 콜레주의 원장 신부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너는 가톨릭이니?” 하고 묻는 것은 ‘너는 사랑을 믿니?’ 하고 묻는 것과 같다고요.” 사랑을 강조하는 원장 신부의 행보는 보다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종교를 탐색하려는 작가의 시도로 보이기도 한다. 반면 알방을 퇴학당하게 하는 장본인인 드 프라츠 신부는 신앙심이 전혀 없는데, 어린 소년들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성직에 몸담게 되었다. 사제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 예식을 거행하는 그에게 종교란 “거대한 속임수”일 뿐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톨릭은 하나의 거짓말이다. 소년들은 거짓말 속에 살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는 한, 사회적 도덕 또한 하나의 거짓말이었다. 머리가 모자라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가 가면을 쓰지 않겠는가?” 그런데 평생 표리부동한 생활을 성공적으로 지켜온 그에게 임종의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 또한 사랑의 신비한 작용이다.

『소년들』은 미학적인 서사를 통해 사랑의 다양한 얼굴을 아우르는 걸작이다. 작품이 보여주는 사랑의 양상은 때로는 코믹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달콤씹쓸한 아련함을 독자에게 선사한다. 그와 동시에 소설 속에 배어 있는 종교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몽테를랑의 고민은 『소년들』을 여러 겹의 의미들이 다성악처럼 공

명하는 잇을 수 없는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추천사

부드러우면서도 종교적인 감정들의 꽃다발, 늦게 핀 장미처럼 개화한 로맨티시즘. _피가로 리테레르

몽테를랑은 그리스도교의 도덕과 세속의 도덕, 영웅적 행위와 쾌락주의적 행위에 대한 숭배가 서로 겨루며 공명하는 작품을 창조해냈다. _아카데미 프랑세즈

말로, 카뮈, 그레이엄 그린의 찬탄을 받았으며, 코르네유와 라신에 비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프랑스 예술가인 몽테를랑은 20세기의 걸출한 작가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_뉴욕 타임스

몽테를랑은 형이상학, 종교, 사회구조, 모든 종류의 관념에 대해 깊어가는 회의주의를 보여주면서도, 인간의 존엄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 _피에르앙리 시몽

몽테를랑이 50여 년에 걸쳐 집필한 『소년들』은 그의 삶과 작품 전체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다. _피에르 시프리오(저널리스트)

몽테를랑이 줄곧 숨겨온 자신의 일부를 드러내 보이는 『소년들』은 20세기 최고의 소설 중 하나다. _패트릭 맥카시(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소년들』은 삶과 사랑의 이상과, 신보다는 인간을 믿는 종교적 삶의 방식을 탐색한다. _페트리샤 오피레히티(『앙리 드 몽테를랑: 실패의 철학』 저자)

본문에서

나이 열다섯 살 반쯤 되면 사랑에 빠지는 덴 이골이 붙는다. _52쪽

그때,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그는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마치 이 아이의 얼굴을 만지는 게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일 듯한 예감. 게임은 끝났고 앞으로 영원히 다시없을, 잊지 못할 약간의 감미로움을 더하는 일 외에는 더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세르주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_247~248쪽

기억나니, 우리 우정의 초기에 내가 “영원히”라고 말했었지. 그러면 내가 “가능한 한 가장 오래도록”이라고 고쳐주었지. 오늘, 너를 떠나면서 이제 나 또한 “영원히”라고 말할 수 있음을 알았어. 그래, 평생, 내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인지를 부정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모든 게 훨씬 더 쉬웠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널 사랑한 건 얼마나 당연한 일이었는지! _310쪽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열간이다. _358쪽

“네 조끼 예쁘다.”

“조끼가 예쁘면 뭐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넌 행복하니?” _395~396쪽

삶은 내일 시작된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다. 부끄러움과 서투름, 무능함으로 인해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려움에 뛰어드는 걸 내일로 미룬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달과 성총권을 가르치긴

해도 지상의 일을 시작할 핵심어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바지부터 좀 입고……” “바칼로레아 시험이 끝나면……” “방학이 지난 뒤에……” “군대에서 돌아오면……” _409쪽

곧 죽을 자와 계속 살아갈 자 사이에 공통의 언어는 없다. _425쪽

차례

두 개의 메모 _7

서문 _13

제1부 아이들의 천국 _19

제2부 신비한 작용 _193

해설 | 사랑의 콜레주 _471

앙리 드 몽테를랑 연보 _477

지은이와 옮긴이

앙리 드 몽테를랑 Henry de Montherlant | 1895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글을 쓰며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1909년 여행중에 투우를 처음 접하고 이듬해 스페인에서 투우를 배웠다. 1911년 바칼로레아 1차 시험 합격 이후 생트크라 드 노이 콜레주의 철학반에 입학하지만, 이 년 후배인 필리프 지켈과 특별한 우정을 나눴다는 이유로 이듬해 퇴학당했다. 이 사건은 소설 『소년들』의 모티브가 된다. 1912년 파리 가톨릭 대학에 입학하여 법률 공부를 시작했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참전하길 원하지만, 임종이 가까워진 어머니가 만류했다. 이 시기에 첫 희곡 『추방』을 쓰며 자신의 문학적 소명을 확인한다. 1917년에는 심장 비대증에도 불구하고 참전한다. 1920년 파리의 출판사 열한 곳에서 거절당한 『아침의 계승』을 자비로 출간하고, 곧바로 문학적 명성을 가져다준 이 작품으로 이듬해 몽티옹 상을 수상했다. 1922년에는 ‘알방 드 브리쿨의 청춘’ 시리즈의 첫번째 작품인 『꿈』을 출간한다. 1934년에 『독신자들』로 아카데미 프랑세즈 문학상을 비롯한 유수 문학상들을 수상하고, 1936년부터 1939년에 걸쳐 출간된 4부작 소설 ‘젊은 여성들’로 수백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다. 1960년에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종신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969년, 1914년부터 집필했던 『소년들』이 오십여 년의 개고 과정을 거쳐 출간되었다. 1972년 건강 악화로 반 실명상태에서 음독 후 권총으로 자살했다.

유정에 | 덕성여대 불어불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8대학 여성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페르디낭 할아버지 너 무한 거 아니에요』 『더 라이언』 『헬』 『제3의 여성』 『개미: 말의 가치를 일깨우는 철학동화』 등이 있다

◆ 발행일: 2018년 11월 7일

◆ 쪽수: 488쪽

◆ 판형: 140*210(무선)

◆ 가격: 16,000원

◆ ISBN: 978-89-546-5302-2 04860 | 978-89-546-0901-2(세트)

◆ 답 당: 손예린 [lit@munhak.com, 031)955-7972]